

◆ 흉강경을 이용한 자연기흉수술후 합병증에 관한 고찰

문석환, 조덕곤, 조건현, 왕영필, 김세화, 곽문섭

가톨릭의대 흉부외과학교실

배경 및 목적 : 자연기흉에 대한 흉강경치료는 흉강경수술의 가장 혼한 적응증으로 흉강경기구[특히 자동봉합기의 발달]및 술기의 발달로 소개흉술을 대치하고 있지만 많은 보고자들이 10%내외의 기흉재발 또는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기흉재발 또는 합병증을 줄이고자 전향적, 후향적으로 임상연구를 계획하였다

방법 : 저자들은 1995년 6 월부터 1998년 7월까지 강남성모병원과 수원 성빈센트병원에서 흉강경을 이용한 자연기흉 치료례 139례 [135명]의 의무기록과 수술녹화테이프를 검토하여 흉강경 수술합병증을 분석하였다.

결과 : 1) 평균연령은 28 +-12.5 세이었으며, 남녀비는 117: 18명으로 남자에서 월등히 많았다. 2) 수술 적응증은 재발성기흉이 78례, 지속성 공기누출이 34례, 환자가 원하거나 우연히 발견된 경우가 21례, 혈흉이 합병된 경우가 6례이었다. 3) 수술사망은 없었으며, 지속성 또는 재발성 기흉이 18례, 수혈을 요하는 출혈이 1례, 흉강경에서 개흉술이 필요한 경우가 6례 있었다[출혈 1례, 자동봉합기이상 1례, 흉강경 접근이 어려운경우가 2례, 자동봉합기가 많이 필요한 경우 2례]. 4) 술후 지속성 공기누출 또는 재발성 기흉의 원인으로는 재수술시 발견된 잔존하는 기낭이 3례, 미만성폐기종에 따른 자동봉합기의 봉합선에서 공기누출이 4례, 과다한 조직절제가 1례, 전기소작 또는 루프슬기에 따른 경우가 2례, 다발성 기낭 2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6례이었다.

결론 : 따라서 자연기흉에 대한 흉강경수술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술식이나 재발 또는 지속성 공기누출이 환자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흉강경수술시 세심한 폐병변 관찰과 적절한 술식적용이 요구된다.

책임저자: 문석환(가톨릭의대) 발표자: 문석환(가톨릭의대)